

# First Steps: Gifts of Kindness

퍼스트 스텝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한 선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 대두

퍼스트 스텝스에서는 콩우유 제조용 대두를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북한 재배 공급분을 추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두 구매를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캐나다에서 개발한 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는 가정식의 영양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비용은 한 포 당 3센트이지만 효과는 탁월한 스프링클스는 임산부와 수유부, 24개월 연령까지의 영유아에게 배급됩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빈혈 및 기타 질병을 성공적으로 예방합니다.

스프링클스 구매를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 콩우유 보관 용기

20리터 스테인리스 스틸 콩우유 보관 용기는 생산 센터에서 콩우유를 보관하고 각급 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배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용기 가격은 \$100입니다.

콩우유 보관 용기 구매를 위해 \$100 또는 \$ \_\_\_\_\_ 를 후원합니다.



## 바이타고트

바이타고트는 다양한 연료(장작, 석탄등)로 작동됩니다. 대두를 콩우유로 만들어 매일 1,500명의 어린이가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양을 생산합니다. 현지 사정상 정전이 잦으나 정전 중에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바이타고트의 장점입니다. 가격은 \$4,000입니다.

북한의 제휴 시설에 바이타고트 기증을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 바이타카우

바이타카우는 대두를 콩우유로 생산하여 따뜻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합니다. 전기로 작동하며 배고픈 어린이들을 먹일 콩우유를 매일 2천 잔씩 생산합니다. 가격은 \$7,000입니다.

북한의 제휴 시설에 바이타카우 기증을 위해 \$ \_\_\_\_\_ 를 후원합니다.

name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prov. \_\_\_\_\_ postal code \_\_\_\_\_  
 phone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cheques payable to First Steps and forward to: 3260 West 5th Ave. Vancouver, B.C. V6K 1V4 Canada  
 BIN: 878227511 RR0001. Gifts are acknowledged with an official receipt for income tax purposes.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us at: 604.732.0195 or www.firststepscanada.org

# 퍼스트 스텝스

# news

SUMMER 2013

“ 기도는 모든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추가 적극 도움에 나서게  
 하는 까닭이다.”

E. M. 바운즈 (미국 저술가)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을 대표하는 베스와 북한을 방문해서 기뻐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동해안에 면한 도시인 원산에 있는 봉춘식료공장에 지난 7월말에 콩우유 제조기 ‘수퍼’ 바이타카우 세 대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19,091 명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한 잔의 콩우유를 제공하고 있는 봉춘식료공장은 북한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퍼스트스텝스의 파트너 콩우유 생산장입니다. 이 ‘수퍼’ 바이타카우 기기들로 봉춘식료공장의 현재 콩우유 생산량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퍼스트스텝스 팀은 어린이들이 계속하여 매일 영양가 높은 콩우유를 마실 수 있는 여러 고아원들을 방문하고 기뻐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많은 어린이들이 극심한 더위와 습도 때문에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어린이들은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다닥다닥 붙은 방에서 지냅니다. 36~7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잊지 못할 미소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최근 북한 방문(8월 10~17일)에서 돌아온 퍼스트스텝스 팀(베스 매킨토시, 브룩 구센, 수잔 리치)의 지속적인 기도에 얼마나 격려가 되는 말인지요. 북한을 위해 꾸준히

새로 계획하고 있는 덕천 콩우유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홍수 피해로 덕천으로 들어가는 주요 교량이 무너진 탓에 덕천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탄광 도시 덕천에는 7월 9 일에서 8월 12일까지 1,229mm나 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수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적었으나, 6



사진: 원산육아원에서 활짝 웃는 미소로 퍼스트스텝스 방문 팀을 반기는 어린이.

채의 가옥이 전면 소실되고, 182 채의 가옥이 손상되었으며, 105 채의 가옥은 전면 침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0톤의 수확이 예상되었던 50.5헥타르의 옥수수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퍼스트스텝스 팀의 차량이 덕천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덕천의 관리 두 분이 차로는 보통 1.5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5시간이나 걸려 인근 도시로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덕천의 최근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을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퍼스트스텝스의 인도적 원조 물자(말린 국거리, 비타민 등) 컨테이너 두 대가 북한에 곧 도착 예정이니 참으로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컨테이너는 모두 덕천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수도 평양에서 우리는 퍼스트스텝스 팀에 합류하고자 인도에서부터 날아오신 서브하시 켈라, 람다스 카담 씨와 만나기 위해 평양 어린이 영양연구소(ICN)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미량영양소 스프링클스 파우더 제조사인 헥사곤의 공동 창업자 켈라 씨와 기술엔지니어인 카담 씨가 새로이 설치한 스프링클스 포장 기계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현지 파트너들은 이분들의 전문성을 높이 사면서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현지 파트너들이 북한에 매우 필요한 스프링클스를 더 잘 포장하고, 현지 포장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진: 평양 어린이 영양연구소에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기술자 람다스 카담 씨

이번 북한 방문에서 형제산, 남포와 원산의 진료소들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스프링클스가 임신부와 아기들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스프링클스 복용분을 받을 수 없다면 매월 검진에

오지 않겠다고 하는 임신부들도 있다고 한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프링클스를 못 받은 여성들은 힘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전형적인 빈혈 증상이지요.

평양 어린이 영양연구소의 스프링클스 포장기계를 매년 8백만 포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퍼스트스텝스는 아기들 전용 포장기계를 한 대 더 설치하여 생산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스프링클스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의사들의 증언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고무 받았습니다. 생산력이 증대되면 영양 결핍 정도가 가장 심각한 고립된 북부 산간벽지의 여성들과 아기들도 스프링클스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콩우유 프로그램 현황

여러분의 도움으로 퍼스트스텝스는 10만 명의 어린이에게 매일 콩우유 한 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단백질,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콩우유는 배고픈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영양결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맛도 좋지요! 최근 방문(5·6월 및 8월)에서 포착된 '콩우유 순간'들을 공유합니다.



## 웃음을 멈출 수 없어요.

퍼스트스텝스 팀이 형제산 서포진료소 (스프링클스 배포 센터 중 하나)를 방문했을 때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려와 아이들이 스프링클스 복용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서 고든 휴스턴 씨가 어리지만

개성이 강한 아기와 웃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진료소의 의사들과 만나 스프링클스가 엄마와 아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매우 기뻐합니다.



사진: 고든 휴스턴 씨와 아기

전체적으로 생산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으로 퍼스트스텝스는 북한의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주시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를 기원합니다.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31)"

지난 5월 25일~6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퍼스트스텝스 팀 구성원들의 소감을 이번 뉴스레터에서 늦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스 오키나간(BC주) 글리너스에서 테리·고든 휴스턴 부부, 밴쿠버 퍼스트 뱍티스트 교회의 오랜 후원자이신 다이어터·레네이트 글럽스 부부, BC주 리치몬드에서 레이철린 리치 씨가 사진 담당으로 지난번 방문에 참여하셨습니다.

## 오키나간 글리너스에서 덕천 시까지

수해로 인한 작년 가을 농작물 피해로 덕천의 배고픈 어린이들은 춥고 긴 겨울 동안 글리너스에서 기증한 말린 국거리에 의존했습니다. 말린 국거리는 필수 영양소 다수를 함유했으며 건조 사과 칩은 어린이들에게 사탕 같은 별미였지요! 오키나간 글리너스를 운영하는 고든과 테리 휴스턴 부부가 2013년 5-6월 북한 방문에 동참하실 수 있었습니다. 덕천에서 테리는 어린이들이 국거리를 좋아했다는 말에 기뻐했습니다. "비트 때문에 색깔이 분홍빛이어서 아이들이 안 좋아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퍼스트스텝스가 북한과 이 북부 도시에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사진: 덕천의 한 유치원 원장님과 포즈를 취한 고든과 테리

테리가 말했습니다. 그날, 현지 유치원 원장 한 분이 두 분 부부에게 말린 국거리와 말린 사과 칩을 보관하는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글리너스에서 보낸 박스에 둘러싸여, 고든 씨는 원장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야채들을 씻고 썰고 말리고 봉지에 넣고 박스에 포장했지만 저는 여기에 기여한 천 명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원장님도 같이 웃으며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보육 교사들의 정성을 보았어요 - 레이철린 리치

남포의 10일 협동농장 유치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세 명을 소개합니다. (협동농장의 어린이들이 10일 동안 유치원에 머물다가 제11일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10일씩 돌아오는 형태.) 퍼스트스텝스에서 먹고자 애쓰는 어린이들을 매일매일 돌보는 이분들에게 저는 엄청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아기들은 충분한 손길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진: 남포의 헌신적인

부모 같은 이들의 관심과 애정을 간절히 바란다는 게 곧 분명히 보였습니다. 여러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교사 각자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린이들이

콩우유를 더 받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퍼스트스텝스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 대한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까지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매일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진짜 어머니들처럼 진심으로 기뻐했고 어린이들은 특별한 선물로서 콩우유를 받았습니다.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은 퍼스트스텝스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지할 수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격려가 될 것 같았습니다.

## 우리 교회에서 기증한 바이타카우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 디터 · 레나타 글럽스

디터와 레나타는 퍼스트스텝스 팀의 첫 북한 방문지인 남포식료공장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13,380명의 어린이들에게 콩우유 한 컵을 매일 제공하기 위해 남포식료공장에서는 밴쿠버의 2012년에 퍼스트 뱍티스트 교회에서 기증한 바이타 카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디터와 레나타는 20년 이상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바이타고트 옆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디터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 흥분됩니다. 굉장하네요!" 그는 나중에

이 북한 방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대단한 경험." 레나타는 퍼스트 뱍티스트 교회의 바이타카우에서 만든 콩우유를 먼저 맛보고 간 일이 꽤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현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콩우유를 즐기는 것을 보자 바이타카우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고. "바이타카우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어린이들을 먹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글럽스 부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콩우유 생산 기계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진: 퍼스트 뱍티스트 처치 바이타카우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디터와 레나타 글럽스 부부